

지방세 확보 싸움에 9개 신규 협력과제도 지지부진

흔들리는 광주·전남도 혁신도시 상생모델

전남도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과 관련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혁신도시 상생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혁신도시시는 정부의 모범 사례로 인정돼 한국전력공사 등이 나주로 이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낸 지방세를 어떻게 쓰냐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추가로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시·도가 상생을 통해 유치하는 작업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발목 잡나? '혁신도시 시즌 1'이 전국 각지에 공공기관을 이전한 뒤 혁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혁신도시 시즌 2'는 2차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전략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10곳의 지자체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세종시도 공공기관 유치를 나서고 있으며, 충청지역은 '지난 혁신도시 시즌 1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이 적었다'며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울산 시도 최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대구시는 '신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을 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대구시

도, 발전기금 조예 단독 제정
市 "협이 없이 독단으로..." 반발
공공기관 추가 유치 발목 우려

는 동구 각산·신서동 혁신도시 주변을 넓히거나, 달서구 등에 별도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남, 강원, 부산, 전북, 충북 등도 이전 대상 기관이 지역에 형성된 혁신도시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상생 현안 사업도 지지부진=애초 기대와는 달리 민선 7기 시도 상생 현안 사업들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앞서 시·도는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한전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력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분부 설치 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등 9가지 신규 협력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 주요 협력과제는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가 공동기금 조성 관련 조례안을 광주시와 최종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입법예고하면서 시도 상생 모델도 흔들리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최현배 기자choi@

지역의 한 교수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모델이 깨지면 정부를 상대로 추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도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전국 혁신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미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고위급회담 북미 새로운 접근법에 주목"

청와대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 "(미 국무부 발표에) 싱가포르 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힌 데 주목하면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 국무부는 '4개의 기둥'(4 pillars)으로 표현했다.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이라며 "지금까지는 3~4년 항목인 한반도 비핵화와 유해발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은 1~2번인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

해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미 협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위급회담에 최선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최부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할 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EU(유럽연합)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CO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며 "당시 저를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핵협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25년 애물' 해남 오시아노 개발 청신호 美 부동산개발회사 현장 찾아 투자 의향

수십년간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전남)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가 될 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기업이 투자의향을 보이면서 오시아노 개발의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6일 전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92년 해남 화원반도에 들어선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광리·화봉리 일원 507만3000㎡(150만평)에 관광호텔, 펜션, 콘도, 마리아, 해수욕장,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재까지 토지 매입비와 기반 조성비, 관리비 등으로 2700억원 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도로, 급수시설,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갖춰졌지만, 25년이 지난 현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인 민간투자 부문이 지지부진하면서 해수욕장과 오토캠핑장만 있고, 주변에 골프장(27홀)이 운영되고 있을 뿐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다.

수십년간 애물단지로 전락해 대표적인 공기업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새로운 돌파구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 종합부동산개발회사인 F사가 최근 오시아노 현장과 전남을 잇따라 방문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올들어 수차례 오시아노 관광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F사 임원은 지난 5일 명천관 해남군수와 전남도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자신들의 구상을 밝혔다.

F사는 1조 4000억원 을 투자해 오시아노를 여수 경도와 같이 해양관광복합단지 로 조성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

"괜한 오해 살라"...광주시 도시철도 공론화 토론 참여 않는다

16년간 논쟁의 진쟁점 마침표를 찍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론이 도출되고, 도출된 결론이 폭넓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9일과 10일에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속의 프로그램에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은 발제와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종합토론회는 오는 9일부터 1박 2일간

해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미 협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위급회담에 최선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최부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진행하며 토론회의 참관인단은 공론화위원회 검증위원 2명과 건설 찬반 양측에서 추천한 3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한다. 또 검증위원 2명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검증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 프로그램 가운데 오리엔테이션과 찬반 양측의 기초 발언 등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와 광주시 페이스북(www.facebook.com/dodreamGJ)을 통해 생중계한다.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는 10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욱~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항공 특가 77,000원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매주 3회 정기편 운항(화3박4일) / 금, 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나가노 북알프스(마츠모토) 직항 전세계

10월 2일(화) ~ 10월 20일(토)

- 10월 2, 9, 16(화 출발) 북알프스, 가미코지 1,198,000원-
- 3박4일(토 출발)[실속] 998,000원- [폭격] 1,098,000원-
- 4박5일 골프(화 출발) 998,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99,000원- ◆ [특급] 7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오전출발
- [실속(세미패키지)] 오사카, 나라, 교토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899,000원-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 [골드]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599,000원- / 5일 769,000원-
- [프리미엄]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799,000원- / 5일 969,000원-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양양 항공 특가(편도 총액) 77,000원!!

- 8/10(금) ~ 9/22(토) 매주 금, 토, 일 출발
- 9/29(토) ~ 10/27(토) 매주 월, 금, 일 출발
- 10/28(일) ~ 12/31(월) 매주 금, 일 출발

[추석 연휴] 무안 ↔ 돛토리 직항 전세기

9월 23일(일) ~ 9월 27일(목), 총 5회 운항

- 9/23(일), 24(월)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 9/25(화), 26(수), 27(목) 2박3일, 3박4일 6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9월, 10월(매주 일, 월, 목, 금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편,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편,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남방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スケジュール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광동권: 여행객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보증보험: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유료로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에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항공료,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대관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